

2024년  
고3 10월  
학평

2023년 시행 고3 10월 학평 국어 문학 | 흥백화전 변형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직소가 부친의 편지를 받고 급하게 뜯어 보니 죄를 입어 백의종군으로 변방으로 가게 된 이야기와 여 승상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사연이 있었다. 특히 여 승상이 혼사를 정한 것과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네가 어릴 때부터 글을 읽어 의리를 잘 아는지라. 모름지기 부모 명령의 경중을 이해하고, 계씨 집안의 작은 정과 여 승상 집안의 큰 은혜의 경중을 잘 헤아려 다시 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 씨 집안과의 혼사를 이루어 멀리 있는 아버를 위로하라.”라고 별도로 말을 하였다.

순직소는 주 씨와 함께 부친의 편지를 보고는 부친이 큰 화를 면하였지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이에 주 씨가 순직소에게 말하였다.

“㉔소저는 계일지와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아 하늘이 둘의 인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처럼 되고 보니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 같군요. 소저는 계일지와 함께 지냈고, 공부하면서 서로의 재주를 공경하였으며, 둘 사이에 조금도 구차한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혼담을 주고받았으나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 최영맹과 왕교란처럼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일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절개를 잃어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 의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소저는 부친의 명을 따라 스스로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순직소가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진실로 작은어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지금 사생의 기로에 계시는데 한나라 시절 제영처럼 황제에게 부친을 용서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혼사를 의논해야겠습니까?”

주 씨가 말하였다.

“㉕소저의 말이 맞습니다. 여 승상 아들에게 편지를 써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합니다.”

순직소가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계일지와 의언약을 생각하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였다. 배를 돌려 개봉부 동문에 매고 이날 밤이 새도록 생각했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무슨 상관하겠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없으니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으로 설득한 후 그 뜻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목숨을 버려 계일지와 의리를 지키리라.”

갑자기 생각해 보니 지난날 부용헌에서 계일지와 맹세할 때 계일지가 죽음으로 맹세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마치 오늘의 일을 미리 예상한 듯하였다.

‘슬프다! 계일지의 정은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계일지는 외아들이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일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㉖나를 제외하고 누가 계일지와 혼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계일지가 배필을 잘못 얻어 금슬지락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갑자기 일어나며 한 가지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계일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옥청관의 여도사인 정현이 말하던 설유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통하여 보면 그 외모가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족자의 글과 글씨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이 아닐 것이니, 만일 설유란을 얻어 계일지의 배필로 삼으면 계일지를 위하여 ㉗내가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계일지가 지금은 멀리 있어서 설씨 집안에서는 나의 말만 믿고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㉘아아, 정말 모든 일이 허사로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계일지가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무심히 쓴 글을 설유란이 관심을 갖고 본 후 한 편의 글을 다시 쓴 것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설씨 집안의 상황을 보고 설유란이 정혼할 곳이 없으면 계일지를 위하여 증매를 자청할 것이다. 만일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정성이 극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계일지가 쓴 것처럼 꾸며서 보낸 순직소의 글을 보고 의양 군주는 계일지를 사뭇감으로 여겨 만나기를 청하나 순직소는 병을 핑계로 만남을 미룬다.

그럭저럭 여러 날이 지나가고 올해가 거의 다 되어 가니 의양 군주는 혼사가 지연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계일지의 병이 이처럼 오래가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는 일부러 칭병하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한번 보기를 계속 재촉하였다.

이에 순직소는 이렇게 거부만 해서는 혼사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계일지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가만히 주 씨와 난지 등과 함께 의논하여 시장에서 유생의 복장을 구입한 후 순직소가 직접 입어 ㉠남장을 한 후 의양 군주 집에 나아가 명함을 드리니 의양 군주가 매우 기뻐하였다. 이에 의양 군주는 취향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장을 한 순직소를 청하여 먼저 앉게 하였다. 그리고 시비로 하여금 주렴을 가져다가 중당을 가려 막게 하고는 모든 시비들이 의양 군주를 옹위하여 발 안으로 들어왔다. 남장을 한 순직소가 일어나 피하려 하다가 두 번 절을 하였다. 이에 의양 군주가 발 안쪽에서 답례하였다. 의양 군주가 발 안에서 남장을 한 순직소를 계일지로 알고 그를 보니 백옥과 명주처럼 광채가 사면에 비추었다. 의양 군주가 크게 놀라면서 ‘세상에 이런 미남자가 있는가? 설유란의 배필이로다.’라고 생각하고는 유모를 통하여 말을 전하였다.

- 작자 미상, 「홍백화전」 -

**학평 변형 문제**

**1.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주 씨는 계일지가 나이, 외모, 재능은 순직소에게 알맞지만,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 ② 부친은 여 승상에게 받은 은혜가 계씨 집안과 맺은 정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③ 주 씨는 순직소와 계일지 사이에 구차한 일이 없었으므로 언약을 깨도 된다고 생각한다.
- ④ 부친은 순직소가 여씨 집안과 혼사를 이루어, 변방에 있는 자신을 구하러 와 주길 기대하고 있다.
- ⑤ 주 씨는 순직소가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까 염려되어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경계하고 있다.

**학평 변형 문제**

**2.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원치 않는 이와의 혼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순직소의 궁여지책이다.
- ② ㉠은 의양 군주에게 계일지의 병을 감추려고 선택한 방법이다.
- ③ ㉠은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순직소의 주도적인 노력이다.
- ④ ㉠을 통해 의양 군주는 혼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 ⑤ ㉠을 통해 설유란이 순직소에게 반하게 되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다.

**학평 변형 문제**

**3. ㉠ ~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주 씨가 계일지와 순직소가 맺어지기에 알맞다고 생각했음이 드러난다.
- ② ㉡ : 상대의 말을 듣고 혼인의 시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음을 드러낸다.
- ③ ㉢ : 계일지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면 불행해질 것이라는 걱정이 드러난다.
- ④ ㉣ : 계일지에게 배우자를 찾아주는 것이 계일지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드러난다.
- ⑤ ㉤ : 자신이 계일지가 아니라서 설유란의 배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다.

**학평 변형 문제**

**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홍백화전」에서 여성 주인공은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일련의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지식 된 도리를 지키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등을 동기로 행동하거나, 이를 타당한 명분이나 근거로 삼아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정당화한다.

- ① ‘부친의 명을 따르자는 주 씨의 말에 수긍했지만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는 것에서 순직소가 자신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고 사건의 주도권을 잃어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부친이 ‘사생의 기로에’ 있는데 ‘혼사를 의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서 순직소가 타당한 명분이 없으면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이 자리에서 죽’지 않고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에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부유헌에서 계일지와 맹세할 때’ 있었던 일을 떠올리며 계획을 바꾸는 것에서 순직소가 사건

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함을 알 수 있군.

- ⑤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하려는 것에서 순직소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와 애정을 동기로 행동함을 알 수 있군.

**5. 다음 중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남장을 한 순직소는 남장한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몸을 낮추어 두 번 절하였다.
- ② 순직소는 계일지에 대한 질투심으로 인해 간장이 끊어질 듯하였다.
- ③ 순직소는 부친의 편지를 받고 혼인을 결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 ④ 순직소는 부모의 명을 거역하지 않고, 자신의 혼인을 무효화하기 위해 남장을 하기로 결심했다.
- ⑤ 순직소는 설유란의 외모와 성품을 칭찬하는 글과 글씨를 보고 계일지의 배필로 점찍었다.

**[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직소가 부친의 편지를 받고 급하게 뜯어 보니 죄를 입어 백의종군으로 변방으로 가게 된 이야기와 여 승상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사연이 있었다. 특히 여 승상이 혼사를 정한 것과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네가 어릴 때부터 글을 읽어 의리를 잘 아는지라. 모름지기 부모 명령의 경중을 이해하고, 계씨 집안의 작은 정과 여 승상 집안의 큰 은혜의 경중을 잘 헤아려 다시 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씨 집안과의 혼사를 이루어 멀리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라.”라고 별도로 말을 하였다.

순직소는 주 씨와 함께 부친의 편지를 보고는 부친이 큰 화를 면하였지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이에 주 씨가 순직소에게 말하였다.

“㉡소저는 계일지와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아 하늘이 둘의 인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는데, 오늘 이처럼 되고 보니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게 있

는 것이 아님을 알 것 같군요. 소저는 계일지와 함께 지냈고, 공부하면서 서로의 재주를 공경하였으며, 둘 사이에 조금도 구차한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혼담을 주고받았으나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 최영애와 왕교란처럼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일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절개를 잃어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 의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소저는 부친의 명을 따라 스스로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순직소가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진실로 작은어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지금 사생의 기로에 계시는데 한나라 시절 제영처럼 황제에게 부친을 용서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혼사를 의논해야겠습니까?”

주 씨가 말하였다.

“소저의 말이 맞습니다. 여 승상 아들에게 편지를 써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합시다.”

순직소가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계일지와 의 언약을 생각하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였다. 배를 돌려 개봉부 동문에 매고 이날 밤이 새도록 생각했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무슨 상관이었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없으니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으로 설득한 후 그 뜻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목숨을 버려 계일지와 의 의리를 지키리라.”

갑자기 생각해 보니 지난날 부옹헌에서 계일지와 맹세할 때 ㉠ 그가 죽음으로 맹세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마치 오늘의 일을 미리 예상한 듯하였다.

‘슬프다! 계일지의 정은 ㉡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계일지는 외아들이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제외하고 누가 계일지와 혼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계일지가 배필을 잘못 얻어 ( ㉢ )

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A]

갑자기 일어나며 한 가지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계일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옥청관의 여도사인 정현이 말하던 설유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통하여 보면 그 외모가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족자의 글과 글씨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이 아닐 것이니, 만일 설유란을 얻어 계일지의 배필로 삼으면 계일지를 위하여 내가 더 이상 해 줄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계일지가 지금은 멀리 있어서 설씨 집안에서는 나의 말만 믿고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사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아아, 정말 모든 일이 허사로다.

그러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계일지가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무심히 쓴 글을 설유란이 관심을 갖고 본 후 한 편의 글을 다시 쓴 것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설 씨 집안의 상황을 보고 설유란이 정혼할 곳이 없으면 계일지를 위하여 중매를 자청할 것이다. 만일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정성이 극진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계일지가 쓴 것처럼 꾸며서 보낸 순직소의 글을 보고 의양 군주는 계일지를 사윗감으로 여겨 만나기를 청하나 순직소는 병을 핑계로 만남을 미룬다.

그럭저럭 여러 날이 지나가고 올해가 거의 다 되어 가니 의양 군주는 혼사가 지연되는 것을 민망하게 생각하였다. 또한 계일지의 병이 이처럼 오래가지는 않을 것임을 알고는 일부러 칭병하여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한번 보기를 계속 재촉하였다.

이에 순직소는 이렇게 거부만 해서는 혼사가 성사되지 못할 것이므로 자신이 직접 계일지를 위하여 수고로움을 사양하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가만히 주 씨와 난지 등과 함께 의논하여 시장에서 유생의 복장을 구입한 후 순직소가 직접 입어 남장을 한 후 의양 군주 집에 나아가 명함을 드리니 의양 군주가 매우 기뻐하였다. 이에 의양 군주는 취항각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남장을 한 순직소를 청하여 먼저 앉게 하였다. 그리고 시비로 하여금 주류를 가져다



10. 다음은 뒷글에 대한 감상이다.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 다른 하나는?

- ① 시간적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
- ② 주 씨는 중국 고사를 인용하여 자신의 염려를 표현하고, 순직소에게 계일지와 야반도주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어.
- ③ 서술자가 인물의 속마음을 그대로 서술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보여 주고 있어.
- ④ 일반인에 비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인물의 모습을 부각시켜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부여하고 있어.
- ⑤ 순직소가 부친의 편지를 받고 혼인을 결정하는 것에서 당시에는 혼인이 개인의 선택이 아닌 가문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순직소가 부친의 편지를 받고 급하게 뜯어 보니 죄를 입어 백의종군으로 변방으로 가게 된 이야기와 여 승상의 도움으로 죽음을 면한 사연이 있었다. 특히 여 승상이 혼사를 정한 것과 이 혼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함이 자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또 “네가 어릴 때부터 글을 읽어 의리를 잘 아는지라. 모름지기 부모 명령의 경중을 이해하고, 계씨 집안의 작은 정과 여 승상 집안의 큰 은혜의 경중을 잘 헤아려 다시 전처럼 고집을 부리지 말고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씨 집안과의 혼사를 이루어 멀리 있는 아버지를 위로하라.”라고 별도로 말을 하였다.

③순직소는 주 씨와 함께 부친의 편지를 보고는 부친이 큰 화를 면하였지만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슬퍼하였다. 이에 주 씨가 순직소에게 말하였다.

“소저는 계일지와 나이, 재주, 외모 등이 모두 알맞아 하늘이 둘의 인연을 내렸다고 생각하였는데, ⑥오늘 이처럼 되고 보니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님을 알 것 같군요. 소저는 계일지와 함께 지냈고, 공부하면서 서로의 재주를 공경하였으며, 둘 사이에 조금도 구차한 일이 없었습니다. 비록 혼담을 주고받았으나 몸을 허락한 적이 없었으니 최앵앵과 왕교란처럼 남자와 함께 야반도주하는 일은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절개를 잃어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죽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과는 함께 의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상황에 처하면 소저는 부친의 명을 따라 스스로 자신의 복을 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순직소가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하여 말하였다.

“진실로 작은어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지금 사생의 기로에 계시는데 한나라 시절 제영처럼 황제에게 부친을 용서해 달라는 상소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혼사를 의논해야겠습니까?”

주 씨가 말하였다.

“소저의 말이 맞습니다. 여 승상 아들에게 편지를 써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혼례를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전합시다.”

순직소가 비록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계일지와 의언약을 생각하면 간장이 끊어지는 듯하였다. 배를 돌려 개봉부 동문에 매고 이날 밤이 새도록 생각했지만 이 위기에서 벗어날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탄식하며 말하였다.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죽는데 무슨 상관하겠는가! 그러나 이 자리에서 죽는 것은 분명한 명분이 없으니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죽음으로 설득한 후 그 뜻을 얻지 못한다면 그때 목숨을 버려 계일지와 의리를 지키리라.”

갑자기 생각해 보니 지난날 부용헌에서 계일지와 맹세할 때 계일지가 죽음으로 맹세하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기억이 떠올랐다. 마치 오늘의 일을 미리 예상한 듯하였다.

‘슬프다! 계일지의 정은 나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자이고 형제도 있지만 계일지는 외아들이라 나를 위하여 다른 사람과 혼인하지 않는 일은 없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를 제외하고 누가 계일지와 혼인할 수 있겠는가? 만일 계일지가 배필을 잘못 얻어 금슬지락의 즐거움을 이루지 못한다면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갑자기 일어나며 한 가지 일을 생각하였다.

‘내가 지금 죽는다면 계일지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추천한다면 이 또한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는가? 옥청관의 여도사인 정현이 말하던 설유란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림을 통하여 보면 그 외모가 매우 아름다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족자의 글과 글씨 또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것이 아닐 것이니, 만일 설유란을 얻어 계일지의 배필로 삼으면 계일지를 위하여 내가 더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④

부친은 여 승상에게 입은 은혜를 갚고자 순직소가 여 씨 집안과 혼사를 이루길 바라고 있으나, 혼사를 이루어 자신을 구하러 와 달라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① 주 씨는 계일지의 나이, 외모, 재능이 순직소에게 알맞다고 생각하여 하늘이 뜻이 계일지에게 있는 줄 알았지만, 이처럼 되고 보니 하늘의 뜻이 계일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② 부친은 계씨 집안은 작은 정이고, 여 승상 집안은 큰 은혜라며 그 가볍고 무거움을 헤아려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여 승상에게 받은 은혜가 계씨 집안과 맺은 정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③ 주 씨는 비록 혼담을 주고 받았으나 구차한 일이 없었으므로 계일지와 의 언약은 잊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⑤ 주 씨는 순직소가 부친의 명을 따르지 않고 계일지와 함께 야반도주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최앵앵과 왕교란의 이야기를 예로 들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설명이다.

### 2. [정답] ③

순직소는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인물이다. 남장도 순직소의 주도적 노력 중 하나이다.

① ㉠은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사를 성사시키기 위해 순직소가 계일지인 것처럼 보이려고 선택한 방법이다.

② 순직소는 계일지를 보기를 원하는 의양 군주를 피하려고 병이 있다고 핑계를 댄 것이지만 계일지가 진짜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④ 남장을 한 순직소를 보고, 설유란의 배필로 확신하게 되므로,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⑤ 설유란이 순직소에게 반하였다는 내용은 뒷글에서 찾을 수 없다.

### 3. [정답] ⑤

계일지와 설유란을 혼인시키려는 자신의 의도를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무력감을 표현하고 있지, 자신이 계일지가 아님을 한탄하는 것은 아니다.

① 하늘이 내린 인연이라고 생각했다는 주 씨의 말에서 주 씨가 계일지와 순직소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음이 드러난다.

② 주 씨는 편지를 받은 날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 여 승상의 아들과 혼인하라는 부친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아버지가 위태한 상황에 처한 지금 혼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순직소의 말을 듣고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혼인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바꾸고 있다.

③ 순직소는 계일지가 제대로 된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 불행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④ 계일지를 빼어난 배우자와 맺어 주는 것이 계일지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4. [정답] ⑤

‘나’를 대신하여 계일지에게 다른 배우자감을 추천하는 것은 그와 혼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행복을 위해 하는 것이므로 상대에 대한 애정이나 의리가 없다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① 아버지의 명에 따라 여 승상의 아들과 혼인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식 된 도리에 따르는 것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순직소의 마음이 드러난다.

② 부친이 ‘사생의 기로에’ 있는데 ‘혼사를 의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에서 순직소가 자식이 된 도리를 명분 삼아 혼인을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 씨 집안과의 혼인은 자식의 도리이므로 타당한 명분이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자리에서 죽’지 않고 ‘부친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한 것에서 타당한 명분이 있기 전에는 행동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과 관련이 없다.

④ 계일지와 맹세한 내용을 떠올리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일지에 대한 애정과 의리가 순직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순직소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노력한

다는 것은 알 수 없다.

5. [정답] ③

순직소는 혼인을 명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원치 않는 혼인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① 남장한 순직소가 두 번 절을 한 것은 의양 군주에게 예의를 갖추고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② 순직소가 간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낀 이유는, 계일지에 대한 질투심 때문이 아니라 자식 된 도리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④ 순직소가 남장을 한 이유는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서이다.

⑤ 순직소는 설유란의 초상화와 설유란의 글과 글씨를 보고 계일지의 배필로 점찍었다. 설유란을 칭찬하는 글과 글씨를 본 것은 아니다.

6. [정답] ②

배개가 없어서 팔을 구부려 베고 잘 정도로 가난하지만 그러한 삶에 만족하는 즐거움을 이르는 말이다.

① 비익조와 연리지라는 뜻으로, 부부가 아주 화목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부부가 되어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즐겁게 함께 늙음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거문고와 비파의 조화로운 소리라는 뜻으로 부부 사이의 다정하고 화목한 즐거움을 의미하는 말이다.

⑤ 삼생을 두고 끊어지지 않을 깊은 인연이라는 뜻으로 부부간의 인연을 이르는 말이다.

7. [정답] ⑤

윗글에서 계일지와 순직소는 재주와 외모가 알맞고, 서로를 공경할 만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또한 윗글에서 계일지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아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윗글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① <보기>에서 '홍백화전'은 재자가인소설이라고 하였으며, 순직소는 설유란의 외모의 아름다움과 글과 글씨 재주를 보고 계일지의 배필로 삼을만하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순직소가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보기>의 '여성이 남장을 하고 남자 주인공을 대신하여 결연을 주도하는' 것에 해당하며, 이를 <보기>는 여성이 서사의 주체가 되는 '여성 주도형 재자가인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③ 부친의 명으로 인해 계일지와 결연에 방해를 받게 되는 것은 <보기>의 '결연 장애'에 해당한다.

④ 순직소는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인을 성사시키기 위해 설유란에게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을 윗글에서 '계일지가 우연히 지나가는 손님으로 설유란의 초상화를 보고 무심히 쓴 글을 설유란이 관심을 갖고 본 후 한 편의 글을 다시 쓴 것으로 본다면 두 사람의 인연은 하늘의 뜻일 수도 있을 것이다.'에서 찾을 수 있으며, 이는 <보기>의 '한 번 보고 사랑을 느끼고 시문을 창화하여 마음을 전함'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8. [정답] ③

계일지를 지칭한다.

①, ②, ④, ⑤는 순직소를 지칭한다.

9. [정답] ⑤

죽음으로 계일지와 의리를 지키려는 방법은 계일지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장애 요인과 함께 제시되어 있으며, 계일지를 설유란과 맺어 주려는 방법은 설 씨 집안에서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장애 요인과 함께 제시되어 있다.

① 순직소가 자식 된 도리를 선택하는 모습이 그려지나,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배필을 찾아주려고 방법을 고심하는 모습 역시 나타나므로 수동적 인물로 볼 수만은 없다.

② 순직소가 개봉문 동문에 배를 매고 밤새 고민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부용헌에 오르지 않았다. 부용헌은 지난 계일지와 맹세했던 곳이지 이 장면에서 순직소가 고민하고 있는 장소는 아니다.

③ 순직소는 부친의 명을 따르기로 하였으므로, 여승상의 아들과의 혼인에서 벗어날 방안을 고민하지는 않았다.

④ 순직소가 겪는 내적 갈등을 서술자가 순직소의 목소리로 직접 서술하고 있다.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10. 정답 ⑤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사회상을 분석하고 있으므로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 ① 작품이 순행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분석했으므로 내재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 ② 주 씨가 중국 고사를 인용한 표현을 통해 주 씨의 발언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내재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 ③ 전지적 서술자 시점이 가진 효과를 설명했으므로 내재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 ④ 인물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있으므로 내재론적 관점에서 작품을 해석한 것이다.

11. 정답 ①

윗글에서는 고전 소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유연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순직소가 설유란이 계일지와 만남을 하늘이 내린 것으로 느끼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필연성에 의해 사건을 구성하고 있다.

- ② 부친의 편지는 서술자에 의해 그 내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편지 내용을 직접 제시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윗글에서 주인공의 고행이나 영웅적 활동담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윗글에서 잦은 장면 전환을 통한 속도감 있는 사건 전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윗글에서 과장된 상황의 설정이나 해학적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다.

12. 정답 ③

윗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 ㉡, ㉢, ㉣이다.

㉠ <보기>의 '재자'란 재주, 외모 등이 공경할 만했던 '계일지'를 말하고, '가인'은 재주, 외모가 역시 공경할 만했던 '순직소'와 '설유란'을 말한다. 윗글에서 계일지와 순직소는 혼인을 언약한 사이였고,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담도 진행되므로 재자와 가인의 결연이란 화소가 나타난다.

㉡ 윗글에서 '순직소'는 설유란이 계일지와 결연을 하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계일지가 쓴 것처럼 꾸며 '한 번 보고 사랑을 느껴 그 마음을 전

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따라서 ㉡의 화소가 나타난다.

㉢ 윗글에서 '순직소'는 여 씨 집안과 혼인하라는 아버지의 명 때문에 계일지와 언약을 지킬 수 없게 된다. 또한 윗글에는 '순직소'와 '계일지'가 부흥회에서 맹세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의 화소가 나타난다.

㉣ 윗글에서 '순직소'는 남장을 하고 계일지와 설유란의 혼인을 성사시키고자 노력한다. 따라서 ㉣의 화소가 나타난다.

㉤ 윗글에서 계일지가 과거 급제하는 모습이나, 황제의 명으로 혼인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 윗글에서 '순직소'와 '설유란'이 '계일지'를 섬기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①, ②, ④, ⑤는 적절한 선지가 아니다.

13. 정답 ①

<보기>의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부모를 위한 도리와 의무에 가까우므로 수동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윗글의 순직소는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위해 남장을 하고 다른 여성과의 혼사를 주선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 따라서 심청과 달리 주체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윗글과 <보기>에서 심청과 순직소의 영웅적 행동은 찾아볼 수 없다.

③ 윗글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을 찾아볼 수 없으나, <보기>는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아버지를 속이라마는,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거짓말로 속여 대답한다.'에서 심청에 대한 관점이 드러난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난다.

④ 윗글의 순직소 역시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으며, 부친과 계일지를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고 있다.

⑤ <보기>에는 실제 사건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윗글에 비해 사실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14. 정답 ⑤

극적 아이러니란 독자가 인물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윗글에서는 의양 군주가 남장한 순직소를 계일지로 착각하는 장면이 극적 아이러니에 해당한다. 작가는 의양 군주가 만난